

2023~2027년

교육균형발전

계획수립을 위한

온라인공청회 (1차)

· 일시 2022. 3. 29. (화) 15:00~17:00

· 방식 유튜브 생중계



인천광역시교육청

INCHEO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2023 ~ 2027년 인천교육균형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 1차

일 시

2022.3.29(화) 15:00 ~ 17:00

온라인

 YouTube 생중계, 실시간 질의응답

<https://youtu.be/baGpGMKGW80>

생중계 QR코드



진행

발제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

축사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 임지훈

사회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박철희

패널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배은주

내가초등학교 교장 김우종

제물포여자중학교 교사 온혜연

송도고등학교 학부모 김채언

비영리교육단체 파랑새 대표 정혜진

인천교육균형발전을 위해 인천교육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사례

발제문

- ▶ 2023~2027년 교육균형발전 계획 수립 방향 / 3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토론문

- ▶ 인천의 교육균형발전을 위하여 / 13

배은주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학교에게 묻고, 마을과 함께 답을 찾아가자 / 18

김우종 내가초등학교 교장

- ▶ 모든 아이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인천교육균형발전 / 23

온혜현 제물포여자중학교 교사

- ▶ 지역·학교간 격차를 줄이고 함께 성장하는 인천교육균형발전 / 28

김채언 송도고등학교 학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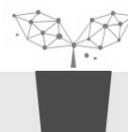
- ▶ 인천교육, 교육격차 해소 방안 / 32

정혜진 비영리교육단체 파랑새 대표

발 제 문

2023~2027년 교육균형발전 계획 수립 방향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2023~2027년 교육균형발전 계획 수립 방향

도 성 훈
인천광역시교육감

1. 시작하는 말

2022학년도 새 학기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이 되어갑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서로 협력하며 학교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배움을 이어가기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인천교육의 현 상황을 “교육회복과 미래교육체제로의 준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지역·학교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교육균형발전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은 원도심과 신도시 간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특성이 있습니다. 송도나 청라, 영종과 검단 같은 신도시에서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반면, 원도심에서는 젊은 부모들이 그 지역을 떠나지 않게 해 달라고 요구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학교나 교육청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인천교육가족과 인천시민 모두가 소통하고 협력하며 중지를 모아야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2. 교육균형발전 사업 개요

인천교육청에서는 원도심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원도심 지역 교육발전 5개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추진평가 과정에서

‘월도심 지역’이라는 범위의 한계를 넘어, 인천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교육발전을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요구로 인해 2018년 1월에 “지역·학교 간 교육 불균형 해소를 통한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균형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 5년마다 “교육균형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들을 교육균형발전대상교로 지정하여 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 올해까지 추진하는 교육균형발전사업이 조례에 근거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2년 현재 교육균형발전 대상교는 총 109교이며, 인천 전체 초중고등학교의 약 21% 정도가 됩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52교, 중학교는 34교, 고등학교는 23교가 교육균형발전 대상교입니다.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세부사업은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총 19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들은 교육환경개선, 교육프로그램, 인적·물적지원에 관한 것으로, 급식시설 현대화, 미래교실 구축, 기초학력향상, 문화·예술교육지원, 전문상담인력 및 도서관 전담인력 배치와 같은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2022년은 1차 교육균형발전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2차 교육균형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수립 초기부터 교육가족, 인천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반영하자는 방침을 정하였고, 그 결과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3. 연구 결과

새로운 교육균형발전사업 계획 수립에 참고하고자 2021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천교육균형발전사업 진단 및 발전 방안’ 위탁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성공적인 2차 교육균형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1차 교육균형발전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과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실시한 위탁연구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연구 결과는 연구진의 의견으로 인천시교육청의 공식 의견은 아닙니다. 2차 교육균형발전

방향과 과제는 앞으로 여러분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숙의의 시간을 거쳐 최적의 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먼저, 연구결과에 나타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주체별로 희망하는 사업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별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학생은 “문화·예술·체육 체험활동 지원”을 가장 많이 요구하였고, 학부모는 “진로진학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가장 많이 요구하였습니다. 교원은 “학생의 심리·정서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균형발전사업이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하여, 학교급별로 차별화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연구에서 제안한 2023~2027년 교육균형발전사업의 비전과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2027년 교육균형발전사업의 비전으로는 “교육균형발전으로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제시하였고, 목표로는 “교육기회 균등으로 모두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제시하였습니다. 연구진에서는 2018~2022년의 비전과 목표에 사업의 취지가 잘 반영되어 있고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2018~2022년의 비전과 목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교육균형발전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첫째, 각 학교의 특성과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여 학교별 통합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자. 둘째, 초·중·고 각각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교급별로 차별화되게 지원하자. 셋째, 지역·학교 간 격차는 학교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지역과 연계한 공동사업을 기획하고 지원을 늘리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1차 교육균형발전계획 수립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컸던 대상교 선정 기준(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상교 선정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교육균형발전 대상교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상교 선정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상교 선정기준은 인천 전체적으로 볼 때, 지역과 학교의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타당성이 높아야 합니다.

1차 교육균형발전 대상교 선정기준은 총 4가지였습니다.

첫째, “학교 건립 시점”으로, 개교 후 25년 이상 된 학교인가?

둘째, “학생 수 감소 비율”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20% 이상, 중학교는 30% 이상인 학교인가?

셋째, “교육비 지원 학생 수 비율”이 15% 이상인 학교인가?

넷째, “학업중단 학생 비율”이 1% 이상인 학교인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지표에 모두 해당이 되고, 고등학교는 위의 4개 지표 중 3개 이상이 해당하면 대상교로 선정하였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이 지표들을 그대로 적용하면 현재 교육균형발전 대상교 109교 중 39교만 해당이 됩니다. 이는 학교 환경이 그만큼 나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연구진에서 제안한 2차 기준안은 1차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총 9개를 제시하였지만, 8개 기준안이 최초 학교선정에 활용가능합니다.

- ① 기초자치단체 지역내총생산 또는 재정자립도
- ② 학생 수 감소 비율
- ③ 교육비 지원 학생 수 비율
- ④ 다문화학생 및 특수학생 비율
- ⑤ 학교시설의 노후화 수준
- ⑥ 학교별 추가 예산 지원 사업 여부·규모
- ⑦ 사업계획서를 통한 추진 의지
- ⑧ 학업성취도입니다.

다음으로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제안 사업(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업은 교육균형발전 대상교를 지원하는 핵심 프로그램입니다. 1차 사업에는 4개 영역 1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진에서 제안한 2차 사업은 6개 영역 27개 세부사업입니다. 사업 영역을 보면, ① 교과 학습지원,

② 비교과 학습지원, ③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④ 시설·환경 개선, ⑤ 예산·정책 지원, ⑥ 지역 연계 강화입니다. 구체적인 세부사업은 기초학력 프로그램 지원,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 배치, 학부모교육지원, 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개방 지원 등 총 27개입니다. 지금 자료화면으로 보실 수 있고 연구자료도 공개하오니,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고 좋은 의견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4. 교육균형발전사업의 방향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 진보와 노동 시장의 변화로, 미래사회에는 소득 분배와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곧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로 이어져 교육격차 역시 더욱 벌어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교육격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 대립은 지금보다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것은 공교육의 책무이자 핵심과제입니다. 교육격차 및 교육불평등 해소를 통해, 조금이나마 좀 더 공정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공교육 본연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비록 작은 노력이라 할지라도, 교육균형발전사업 계획을 잘 수립하여 실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제2차 교육균형발전사업 계획은 어떤 방향하에서 수립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아직 구상 단계인 방향에 대해 3가지 정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균형발전사업은 교육공동체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과 인천시민 모두가 교육의 주체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교육은 수업과 교육과정, 교육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하향식 의사결정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시도도 일부 있었지만, 의견 수렴의 질이나 범위가 제한적이었고 형식적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2023~2027년 교육균형발전사업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교육공동체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공동체가 다양한 의견

과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교육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콘텐츠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학교별·지역별로 협의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교육균형발전사업 대상교의 자율성이 한층 더 강조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 교육균형발전사업의 지원방식은 크게 2가지입니다. 대상교에 학교기본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것과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참여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는 대상교가 어느 정도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지만,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참여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에서는 대상교가 자율성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각 학교의 특성과 여건, 필요와 요구는 학교별로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제시하는 각종 사업들이 해당 학교의 필요와 요구를 명확하게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균형발전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상교 구성원들이 민주적인 회의 과정을 통해 교육균형발전사업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지역·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학교에 꼭 필요한 사업은 무엇인지,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은 얼마나 필요한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학교의 의견을 들어 수용가능할 경우 채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셋째,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도 학교와 지역의 교육균형발전의 한 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학교 간 교육격차의 해소는 학교 현장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와 시민 모두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여, 학교와 지역 맞춤형 사업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의 마을교육공동체와 교육혁신지구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사업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교육균형발전사업을 위한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사회의 인적 역량과 물적 자원을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5. 맺음말

존경하는 인천시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올해 2022년은 인천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교육결손을 회복하고 미래교육체제로의 전환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교육가족 모두는 ‘일신 일일신’이라는 말을 2022년 시작과 함께 가슴에 새겼습니다. ‘일신 일일신’은 ‘진실로 하루를 새롭게 하고, 날마다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교육균형발전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 여건이나 학교 환경 등으로 차별 받지 않고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평등한 꿈을 꿀 수 있도록 나날이 노력하고자 합니다.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청의 노력에 인천시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모두 격려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 론 문

- 인천의 교육균형발전을 위하여

배은주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학교에게 묻고, 마을과 함께 답을 찾아가자

김우종 내가초등학교 교장

- 모든 아이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인천교육균형발전

온혜현 제물포여자중학교 교사

- 지역·학교간 격차를 줄이고 함께 성장하는 인천교육균형발전

김채언 송도고등학교 학부모

- 인천교육, 교육격차 해소 방안

정혜진 비영리교육단체 파랑새 대표





인천의 교육균형발전을 위하여

배 은 주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1. 인천광역시는 광역시 중에서도 매우 특이한 곳입니다. 도시와 농어촌이 함께 공존하고, 원도심 지역과 신도시 지역이 함께 공존하며, 항구와 공항이 함께 공존하는 곳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환경조건을 가지고 있어 지역간 계층간 차이도 다양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교육 분야에서도 나타나는데, 특히 도시개발과 인구이동이 급속해지면서 인천광역시 내 지역간 차이가 두드러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교육 분야의 격차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역간 격차로 인해 심화되는 교육격차를 극복하기 위하여 교육청은 원도심 교육발전으로 시작하여 이제는 교육균형발전사업으로 확대하면서 지역간 학교간 격차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 2023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교육균형발전사업을 위하여 위탁연구의 결과 연구진에서는 **교육균형발전사업의 비전으로 “교육균형발전으로 행복한 교육공동체”**가, 그 목표로는 **“교육기회 균등으로 모두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가 제시되었습니다.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이전의 비전과 목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을 제안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에 한편으로는 공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비전과 목표에 사업의 취지가 잘 반영되어 있다는 연구진의 평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비전은 몰라도 목표까지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에는 상당히 아

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이전 사업의 성과를 점검한 결과 여전히 다음 5개년에도 “교육기회 균등”이 목표로 설정될 필요가 있음을 절감하였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이전 5개년 사업에서 “여전히” 교육기회 균등조차 달성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분야에서 평등을 거론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교육기회 균등의 문제입니다. 누구에게나 교육의 기회는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당위적 명제를 달성하기 위해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불균등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여러 제도적 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교육균형발전사업이 아니더라도 이미 실시되어 온 것들이지요. 이미 교육의 기회 균등을 넘어 교육과정과 교육의 결과 상의 평등을 지향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들이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의 기회 균등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식적 교육의 기회 균등이 아닌 실질적 교육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다양하고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육균형발전사업에서는 그러한 의미에서 “실질적 교육의 기회균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목표 아래 진행된 사업이 5개년을 지나 다음 5개년을 계획하는 이 시점에 여전히 교육의 기회 균등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면 교육균형발전사업은 교육의 기회 균등을 목표로 10개년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전의 사업에서 그 목표 달성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아 동일한 목표를 설정하였을 수도 있고, 그 목표가 교육균형발전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기에 동일한 목표를 설정하였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음 5개년에서는 동일한 비전 아래 목표는 조금 더 진일보한 것이 설정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살짝 남는 것은 과한 바램인지 모르겠습니다. 즉, 지난 5개년 사업에서 교육의 기회 균등이라는 목표는 70% 내지는 80% 이상 달성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3. 이번 연구에서 다음 계획에 변경을 제안한 **교육균형발전 대상교 선정기준안에 대하여** 공감하면서 아울러 고려해 보아야 할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새롭게 제안한 선정기준안에서 첫 번째의 ‘기초자치단체 지역내 총

생산 또는 재정자립도'의 경우 지역 내 총생산이나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교육균형발전 대상교 선정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당연히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계층적으로 높은 지역일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이런 지역에 위치하는 학교는 선정에서 불리해야 할 듯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나 서구청처럼 신도시 지역과 원도심 지역이 함께 공존하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원도심 지역에 위치하는 학교들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기초자치단체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불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억울해 보입니다. 신도시 지역과 원도심 지역 구분이 명확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보다 세분화된 지역 구분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바랍니다.

4. 다음으로 제안된 **세부사업 27개**가 이전 사업과 연속적인 것이 많아 특별히 새로운 것은 없지만, 세 가지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과학습지원에서 학생별 맞춤형 학습컨설팅 지원은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필요성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일 수 있습니다. 국가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과 결부하여 교육청에서 교육균형발전을 위하여 좀 더 세밀하고 효과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그러자면, 기존에 시청이나 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대학생 멘토링 사업과는 차별화되어야 할 것이고,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에서부터 시작하여 궁극에는 전 학생으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원한다면 자신의 학습상황에 대하여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학교! 그것을 교육균형발전교에서 먼저 이루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설환경 개선 영역에서 온라인 학습용 기기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노트북이나 패드를 가지고 수업하는 미래 스마트 학습시대를 열게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온라인 학습은 학교에서도 진행될 수 있지만,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가정에서도 필요한 필수 학습유형이 되었습니다. 지난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가정 온라인 학습을 위

해 교육청은 온라인 학습기기가 없는 학생들을 위해 기기를 대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의도하지 않게도 일부 외국인가정 자녀들의 경우 본인의 휴대폰으로 온라인 학습을 진행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학교에 지원 요청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거나 한 듯 보입니다. 그리고 일부 외국인 가정의 경우 경제적 형편상 무선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아 학교에서 대여해준 기기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편하여 휴대폰으로 진행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온라인 학습용 기기를 지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학생이 잘 몰라 기기 요청을 못하거나 인터넷 비용이 지원되지 않거나 지원되는 것을 몰라서 휴대폰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담임 교사의 좀더 세심한 챙김이나 학교나 교육청의 좀더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외국인가정 자녀의 경우 가정에서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어 교육청이 실시하는 인터넷 비용 지원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외국인가정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연계 강화 영역에서 플랫폼 스쿨 또는 공유학교 운영을 제안하였는데, 지역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시설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것은 이미 학교복합화시설을 통해 실시되고 있고, 그 운영상의 여러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습니다만, 시설의 공유나 시설의 개방, 인적 교류 등은 이미 학교별로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실시되어 온 사업들입니다. 필요한 것은 운영상의 묘를 발휘해 보다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운영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연계 강화를 위하여 보다 세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은 교육청 주도로 실시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형성인 마을학교 운영입니다. 교육균형발전 대상교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서 마을학교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학교가 담장을 허물고 연계를 강화해 나간다면 교육균형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플랫폼 스쿨’과 ‘공유학교’ 두 개념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시설을 주민과 공유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로 플랫폼 스쿨이 적절하지 궁금합니다. 플랫폼 스쿨은 조금 다른 의미를 담을 수도 있어 보여서요.

5. 다음 교육균형발전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해 보이는 부문이 예산 정책 지원입니다. 여기에 제시된 사업들이 모두 다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전 사업 추진에서 학교현장에서 가장 아쉬워했던 그래서 더 필요성을 절감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이 사업들이 실현되어 다음 교육균형발전 사업은 더 큰 성과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학교에게 묻고, 마을과 함께 답을 찾아가자

김 우 종
내가초등학교 교장

저는 교장의 첫 발걸음을 이번 3.1.자로 강화도 내가초등학교에서 내딛게 되었습니다. 언제 한번 내가초등학교를 방문해 보시면, 저절로 감탄하게 되실 거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학교버스를 기다리며, 운동장에 삼삼오오 뛰어다니는 어린이들과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름드리 은행나무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아득히 저수지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정말 오고 싶은 학교, 머물고 싶은 학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앞서 교육감님께서 발제해 주신 말씀처럼 2023년부터 펼쳐질 제2차 지역·학교 교육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과 학교간의 교육격차 및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마땅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지지만, 교육격차와 불평등이 다만 교육청과 학교만의 노력으로 쉽사리 해결될 문제가 아님에도 교육감님과 교육청, 인천 관내 학교의 어깨를 너무 무겁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자체와 함께 인천시민 모두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일인데 말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내가초등학교도 강화도 관내 20개 초등학교 중에서 지역·학교 교육균형발전 대상교로 지정된 2개교 중에 한군데입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교육균형발전에 대해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함께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간의 교육 경험 속에서 생각했던 지극히 개인적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체계적이고, 면밀한 연구과정을 거친 것도 아니고, 중고등학교의 실정과는 맞지 않는 면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역·학교 교육균형발전사업 개선방안을 네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나눔과 소통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지역·학교 교육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교사·학부모 대상 홍보와 운영 노하우 컨설팅, 수요자(학생, 학부모,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는 나눔과 소통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인천의 신도시 중에 하나인 청라지역에서 7년간 교감으로 생활하다 보니, 교육균형발전에 쏟고 있는 인천교육의 열정에 대해서 그동안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아마 대상교로 지정된 학교의 학부모님들의 경우에도 우리학교가 대상교인지? 아닌지? 그렇다면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분이 많을 듯 합니다.

이제 인천 관내에서도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교직원의 민주적 의견 나눔과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위한 통로가 학부모회 및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따라서 교육균형발전 대상교를 중심으로 교직원 대상 교육균형발전의 필요성과 사업추진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컨설팅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청 차원에서 대상학교 학부모 설명회를 통해 교육청과 학교의 노력을 홍보하고, 그 자리에서 대상 학교별로 소분임을 만들어 학교 담당교사와 함께 해당학교에서 필요한 사업분야를 논의하기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컨설팅 및 설명회 자리는 매년 10월경에 실시하여, 11월부터 시작되는 새학년도 교육과정 준비와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교육균형발전 사업에 참여하는 단위학교 교직원에게 신바람을 심어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모든 교육활동은 단위학교에서 그리고 교실에서 마무리 열매를 맺게 됩니다. 교육균형발전 사업이 자칫 현장에서 예산을 써야 하는 업무로 교직원들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교육격차와 불평등이 존재하는 대상교에 지원이 오는 것은 반기고, 기뻐해야 할 일이지만, 교사와 행정실 직원들에게는 또 다른 업무 가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균형발전 사업 대상교 교직원들이 신바람 나게 학교 교육환경을 잘 조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열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메리트를 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상교 교사를 위한 전보이동 가산점 신설 또는 교직원 포상제도를 통해 노고를 인정해주는 방법, 대상교 교직원 힐링캠프를 운영하여 교육균형사업 진행에 따른 피로감을 해소해 주기, 각급 학교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노하우 공유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교육활동이 학생들과 대면하는 단위학교와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마무리된다고 볼 때 해당 대상학교 교직원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고, 격려해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혹시나 필요한 교육사업이 현장에서는 업무가중으로 자리잡을 수도 있음을 우려해서 제안해 봅니다.

셋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단에서 교육균형발전 대상교를 직접 지원하는 루트를 마련하고, 정보 공유를 극대화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미 인천시교육청은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행정, 시설, 업무,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하는 학교지원단이 활동 중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학교시설의 개선과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다만, 대상교의 업무경감을 위해서는 학교지원단에 전담팀원을 증원해서, 학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자원 특히 인적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종 교육활동과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교사의 업무 피로도가 높은 일이 바로 인력 채용입니다. 채용을 위해 계획, 공고, 채용심사, 각종 조회,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 협의, 진행상태 점검, 강사 및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이 뒤를 따릅니다. 그렇기에 학교지원단에 인력풀을 담당하는 전담팀을 증원하여 교육균형발전 대상교가 보다 손쉽게 인적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주어야 합니다.

지역·학교 균형발전 4개 영역 19개의 세부사업은 예산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2,250만원의 학교 전입금 및 각종 사업 예산도 추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균형발전 예산이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문 소양을 갖춘 인적자원과의 매칭이 용이 해야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인적자원의 채용을 위해 교사들의 업무가 역설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지원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활용하되, 보다 편리하게 학교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보완하기를 바랍니다.

학교지원단의 홈페이지가 아직은 낯설고,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해당학교의 요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면, 배송이 어디까지 오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조회가 됩니다. 학교지원단 홈페이지도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AI처럼 24시간 언제든지 직접 소통이 가능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여하튼 다른 방식으로라도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하도록 발전시켜 나가길 제안합니다.

사실 인적자원 인력풀제의 운영은 교육균형발전 사업에만 필요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학교현장의 계약제 교원 채용에도 필요합니다. 작년과 올해 학교업무 경감을 위한 한시적 기간제 지원과 기초학력신장을 위한 인력 지원을 하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기간제교사 품귀현상으로 채용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심해진 교사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강사 채용은 이제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교지원단에서 풍부한 인력풀을 갖추도록 찾아나서야 할 것이며, 인력자원이 매칭되도록 지자체와 교육청에서는 보다 실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인력풀을 확충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바래 봅니다.

넷째, 인천시교육청 ‘인천마을교육공동체’의 홈페이지의 기능을 확대하고, 마을자원과 소통을 위한 ‘마을자원 엑스포’ 개최를 제안합니다.

교육균형발전 사업이 아니더라도, 마을연계교육은 이미 인천교육의 큰 축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다만, 보다 다양하고 풍성한 지역과 마을연계 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하는 ‘마을자원 엑스포’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 주제는 인천시교육청 정책연구소와 협력하고 있는 교원들의 자발적 정책연구 모임인 ‘교육정책 연구두레’에서 현장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안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미 시교육청의 마을교육지원단에서는 온라인커뮤니티로 마을자원지도를 제작하거나, 다양한 지역별 마을자원 소개자료를 제작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음식점에 들어가서 생소한 메뉴를 보면, 종업원이나 사장님께 이건 어떤 맛인지? 무슨 재료가 들어가는지? 어떻게 조리하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그렇게 음식점 사장님과 소통을 하고 난 후에 나에게 맞는 음식인지? 적당한 가격인지 고민하여 음식을 주문하게 됩니다.

이렇듯 마을연계 교육활동의 두 주체(학교와 마을자원)가 소통할 수 있는 창구와 온라인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역량있는 마을연계 자원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가치를 홍보하고, 어디까지 학교교육활동에 참여하여 교육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또는 홍보할 수 있는 자리가 ‘마을자원 엑스포’를 통해 이루어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렇듯 마을자원 스스로가 자신의 역량과 가치를 알릴 수 있는 만남의 자리와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인천마을교육지원단에서 힘들겠지만, 보강해 준다면 교육현장에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육균형발전으로 행복한 교육공동체 만들기’를 비전으로 삼고 있는 교육균형 발전사업이 벌써 5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2차 사업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시작됩니다. 지난 5년간의 성과를 잘 다듬어서 다가오는 2차 시행단계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의 배정과 아울러, 수요자(학교와 학생, 학부모)의 입장을 보다 면밀히 헤아려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미시적 접근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균형발전 대상교의 교직원들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사업의 기획과 더불어 예산을 마련해 주시고, 토대를 닦아주신 교육감님과 교육청, 지원청의 노고에 일선 학교를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아이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인천교육균형발전

온 혜 현
제물포여자중학교 교사

1. 시작하는 말

40년이 넘은 우리 제물포여자중학교는 오래되었지만 아름다운 학교입니다. 아름다운 홍매화, 할미꽃, 향나무, 선생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까르르’ 하루 종일 웃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우리 학교는 ‘별하마리’(별처럼 높은 으뜸인 아이)라는 미래교실인 지능형 과학실이 생겼습니다. 40년이 넘은 낡은 건물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복도 끝, 멋진 교실을 아이들이 계속 들여다봅니다. 한 번도 그 곳에서 수업을 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공간이 좋은가 봅니다. 낡고 오래된 건물 안, 그 새로운 공간만으로도 아이들은 이미 신나 있습니다.

2. 인천교육균형발전에 대한 질문

원도심과 신도시 간 교육환경 차이, 교육격차는 교육 주체가 오래전부터 해온 고민이기도 하고 꼭 해결하고 싶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해 주고 싶은 교육청과 학부모님 그리고 우리 교사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 제 스스로와 여러분들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 봅니다.

 교육균형 발전 대상교라는 문구에는 **교육주체의 주도성과 자율성**은 배제된 채 낡고 어려운 학교를 지원한다는 색이 덧입혀져 있습니다. 부드럽게 순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교육균형발전대상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행복배움학교와 같이 교육 주체들이 교육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된 학교는 안 좋은 학교가 아닌 **지속가능한 ‘오래된 미래’를 품은 다채로움이 있는 학교**로 생각을 바꾸는 방법은 없을까요?

 교육균형 발전교만을 대상으로 한 과제는 단 3가지, 나머지 16개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정책사업에 우선 공모(신청)권을 주는 것입니다. 개별 학생 및 개별 학교의 특색을 살리지 못하고 그저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행복배움학교 예산지원처럼 **통합적 예산지원(통합 프로그램 기획)**은 어떨까요?

3. 향후 추진방향, 선정기준(안) 및 사업과제(안)에 대한 의견

교육감님의 말씀처럼 지역·학교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정의롭고 평등한 미래교육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것에 적극 동의합니다. 새로운 버전의 교육균형 발전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평등한 출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버전의 교육균형발전 선정기준, 추진방향, 사업과제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선정기준(안) :

기존의 4개뿐이던 선정기준이 9개로 확대되고 ‘**가중치를 부여한 점수화**’ 방안에 동의합니다. ‘**가중치를 부여한 점수화**’를 통해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여 교육균형이 실제로 필요한 학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새로 들어간 기준

안 중에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학교·학생의 특수상황을 반영한 ‘다문화학생 및 특수학생 비율’, 학교의 사업 추진 의지와 노력을 반영한 통합적 ‘사업계획서 제출’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영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선정된 ⑧학업성취도(예:기초학력미달 비율)영역은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정기준은 자칫 교육균형발전 대상교가 넓고 공부도 잘 못하는 학교라는 낙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2) 추진방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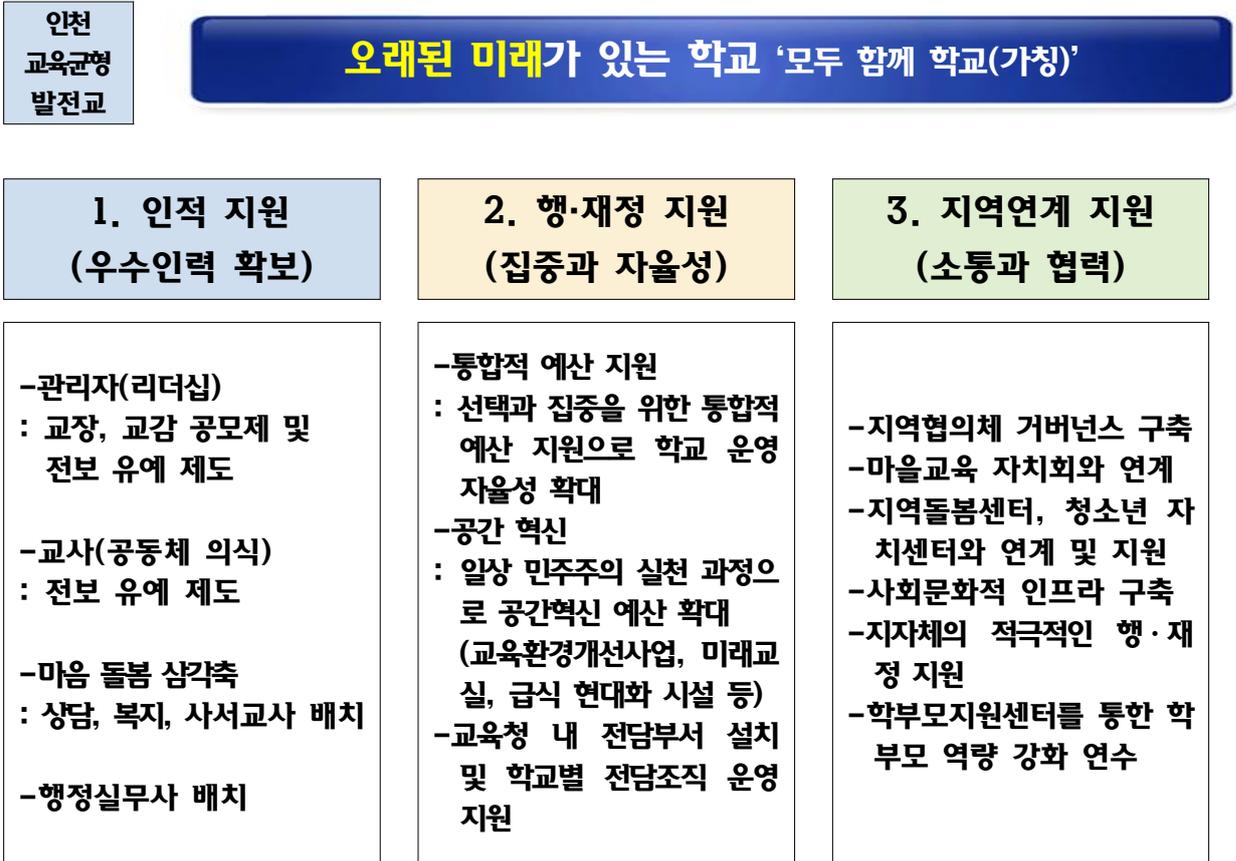
‘인천형 혁신학교인 행복배움학교’처럼 **학교별 통합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여 인천교육균형발전교인 ‘**모두 함께 학교(가칭)**’의 추진과제를 세우고 실험적으로 운영하여 모델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단위학교에 자율성을 발휘하도록 지원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교육혁신지구 내 ‘마을연계교육과정’, 지역아동센터·청소년 자치센터를 기반으로 한 마을과 연계된 교육사업을 설계·운영하는 것 또한 **마을과 동행하는 교육균형발전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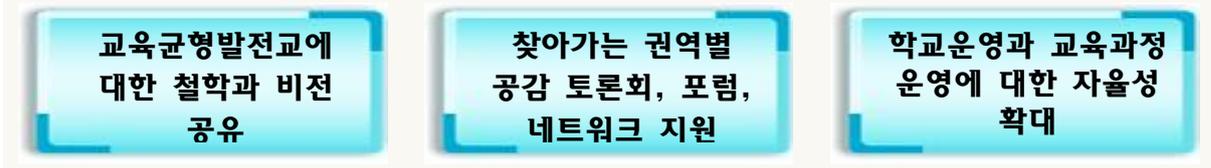
3) 사업과제 :

2018~2022년 19개 세부사업이던 교육균형 발전 사업을 27개로 늘리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3개 사업만 교육균형발전 대상교를 위한 지원이고 나머지 사업들은 공모(신청)시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하게 교육균형발전 대상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효용성이 떨어지고 교육균형발전 교육의 비전과 목표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교육회복이 시급한 2022년 현재, **교육균형발전 사업만을 위한 정책개발, 예산확보 및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내가 생각하는 인천교육균형발전의 청사진



교육균형 발전교에 대한 인식 개선



5. 맺음말

20년째 원도심에서만 근무했던 교사로서 **교육격차, 지역격차를 해소해 주기 위한 교육청과 지자체의 노력**에 무한한 격려와 지지를 보냅니다.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는 **그 자체로 삶의 공간**입니다. 40년이 넘는 오래된 우리 학교에서도 아이들은 그 공간을 아끼고 아름답게 꾸미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아이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공간을 짓기 위한 **집중적·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균형발전 사업은 오래된 학교에서 아름다운 미래를 찾기 위해서 시설환경개선사업비, 운영 예산비, 문화예술·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무엇보다 든든한 디딤돌로서 인적자원을 지원해줍니다. **모두가 존엄한 아이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주는 교육균형발전 사업이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여 공정하게 선정되고, 방향을 잘 세워, 촘촘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학교간 격차를 줄이고 함께 성장하는 인천교육균형발전

김 채 언
송도고등학교 학부모

1. 들어가는 말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각종 대립과 갈등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역 및 세대 간 갈등, 자원 분배의 불균형으로 인한 소득 격차 발생 등 이러한 문제는 교육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우리는 지금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쇄신하고 학생들에게 평등과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새로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인천교육균형발전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2. 인천교육균형발전의 새로운 방향

2.1. 학교가 주체가 되는 교육균형발전

어떤 단체나 조직이든 현재 모습에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화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부적 동기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재원에 의해 학교가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구성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며 해결책을 찾아나갈 때 발전 가능성은 더 크며 지속적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교육균형발전대상교’라는 사업 명칭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길 제안합니다. ‘대상교’라는 말은 학교가 원해서라기 보다는 일정 기준에

따라 상부 기관에서 정하여 시행하는 느낌이 들어 학교를 주체가 아닌 객체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학교 구성원의 내적 동기가 반영된 자발적 사업 운영이 어렵고 그저 주어진 대로만 해야 하는 의무적 사업 이행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균형발전대상교’라는 명칭 대신에 (가칭)‘교육균형발전으로 함께 성장하는 학교’ 혹은 간단하게 ‘교육균형 성장학교’와 같이 이 사업의 비전을 담은 사업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표에 의해 ‘교육균형발전대상교’를 선정한다 해도 선정된 학교 중 실제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만 신청받아 각 학교가 이 사업의 주체가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희망 학교에 집중 지원해 주는 것이 교육균형발전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여겨집니다.

2.2. 학교가 결정하는 교육균형발전사업

2018~2022년 시행된 ‘교육균형발전사업’은 4개의 중점 과제에 19가지 세부 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개 세부 추진 과제 중 다음 3가지는 109개 모든 학교에 지원하고 나머지 16개 사업은 신청할 경우 일반학교 보다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① 1. 문화예술로 여는 행복한 학교교육
- ② 13. 학교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 ③ 18.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공동체 구축

<교육균형발전대상교(109개교) 모든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16개 사업은 교육균형발전대상교 이외에 일반학교도 얼마든지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학교에게도 교육청의 지원이 있어야겠지만 교육균형발전대상교와 일반학교의 차별화가 더욱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16개 사업에 대한 우선권 이외에 학교가 각자 자기 학교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사업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학교기본운영비가 추가로 지원되어 이 지원금으로 학교에 필요한 사업을 만들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학교기본운영비는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여러 부분에 사용해야 해서 자율권을 발휘한 사업 운영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인천교육균형발전의 새로운 과제

: 2023~2027년 교육균형발전 선정기준(안) 및 사업 과제(안)을 중심으로

3.1. 선정기준의 다양화와 그에 따른 고려사항

현행 교육균형발전대상교 선정기준은 4개의 지표이고 모두 수치를 헤아려 정하는 정량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정성적인 부분을 추가하여 선정기준이 좀 더 다양화되고 치밀해질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학교가 교육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스스로 느껴야 역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를 포함한 구성원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그것이 추진 의지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선정기준(안)에 학업성취도가 있는데 이 기준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교육균형발전대상교는 주로 원도심에 위치한 학교인데 학업성취도로 대상교를 선정할 경우 원도심 학교는 자칫 공부 못하는 학교로 낙인 찍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원도심에 위치한 학교 중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교도 있어 사실과 다른 왜곡된 정보로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직원 및 지역 주민들에게 패배 의식이나 좌절감을 줄까 염려 됩니다.

3.2. 교육균형발전 세부 사업 제안

뉴스나 신문기사에서 사회 안전망, 복지 안전망, 방역 안전망과 같이 ‘안전망’이라는 단어를 종종 보고 듣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현상 일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안전망’은 사회 곳곳에 필요합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중요하게 여겨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행 교육균형발전 사업의 중점 과제 중 인적 인프라 강화 영역의 ‘전문상담인력 우선 배치’,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우선 배치’를 이와 연결시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있어 상담교사와 사서교사만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교육복지사의 우선 배치를 제안합니다. 수업 이외의 비교과교사로 상담교사, 사서교사, 복지사가 교내에 상주하며 개별학교 안전망의 주축이 되어 학생들에게 온전한 생활 안전망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특히 학생들과 밀접하게 생활하는 상담교사, 복지사는 지역의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개별 학생 맞춤형 지원이 가능할 것이고 이는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안정에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4. 나가는 말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각종 대립과 갈등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그런 영향이 미치도록 수수방관(袖手傍觀)의 자세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 교육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더 세심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 인천의 교육균형발전 사업이 그러한 적극적이고 세심한 계획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 등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차기 인천교육균형발전의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질텐데 그 기준은 아이들이 어디에 살든 어떤 학교에서 교육받든 균등한 교육기회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런 인천 교육균형발전 사업이 지역·학교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여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인천교육의 밑거름으로 역할을 다 하길 바랍니다.



인천교육, 교육격차 해소 방안

정혜진
비영리 교육단체 파랑새 대표

1. 선정 기준(안) 및 세부사업(안)

1.1. 선정기준 세분화에 대해

기존 4가지로 선정되던 기준을 9개 기준으로 제시하여 더 자세히 들여다 보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정기준안이 세분화되어 또 하나의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더 많은 기준을 제시하여 그만큼 많은 기준에 충족해야 대상교가 되는 형식이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더 까다로운 잣대를 대는 상황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1.2. 세부 사업에 대해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닌 학생의 꿈과 끼가 확장될 수 있는 수업들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장의 요구사항을 보면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의 시각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연령별 사업의 차별화가 필요하고 저학년일수록 심리, 정서, 인성, 교과 등을 진행하여야 하며, 고등학생으로 올라갈수록 진로 직업과 연계될 수 있는 수업들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시기별로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합니다.

과거 저희 단체에서 진행한 꿈 끼 찾기 프로젝트 중 보컬트레이닝부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기획 당시 원도심의 특성상 하고 싶어도 못하는 아이들이 울 꺼라 생각하여 기획하였고, 장점을 발전시켜 가수를 꿈꾸는 아이들이 울 꺼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음치인 아이들이 더 많이 왔습니다. 자신의 단점

을 인지하고 친구들 앞에서 노래 한 곡이라도 음 이탤이 생기지 않고 부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중·고생들이 많았습니다. 또 한 친구가 오자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양한 교육기회가 제공되면 학생들 스스로 부족한 점을 채워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환경을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1.3. 학부모 교육에 대해

교육은 학생에게만 해서 근본적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대상교 학부모님들을 위한 필수 생애 주기별 부모교육을 제안합니다. 임신기 - 영아기 - 유아기 - 초1 - 초4 - 중1 - 고1로 나누어 부모교육이 의무화 되어야 합니다.

현재 학교 단위로 진행되는 학부모연수를 확대하여 부·모 모두를 위한 온라인 학부모 의무연수를 제작하고 상시 교육받으실 수 있도록 한 후 학교에서 이수 확인을 돕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다국적 학부모를 위한 자막 처리 가능한 다국어 영상을 제작하여 제공하도록 합니다.

다수의 가정에서 자녀의 학습 능력, 인성, 학습 태도를 알지 못하고 학교와 학원에 너무 많이 맡기고 있는 실정이라 학교교육의 이해, 가정교육의 필요성 인지, 교육격차 상황인지 등의 효과를 예상하고 문제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하여 가정에서 문제를 빠르게 진단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 타 시도 사례

2.1. 교육격차 지원 시기에 대해

현재 교육격차 비교는 인천 내 교육격차에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서울과 경기, 세종, 대전 등과 비교 대상이 되어야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격차에 대해 타 시도와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연구에서는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초등학교 고학년 이전 시기 적극적인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학습격차가 시설의 차이도 중요하지만 학습에 대한 태도나 가족 환경으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학년부턴 발생하는 학습이해도의 차이를 줄이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어렸을 적 학습격차는 추후 더 큰 학습 격차와 자존감, 자신감의 차이를 발생시키므로 저학년때부터 학습을 따라갈 수 있도록 더 꼼꼼한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2.2. 예산 지원에 대해

지자체의 예산 지원 차이로 또 다른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특정 구의 예산 부족이 발생하면 예산이 초과되는 구에서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형식도 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천도 이런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3. 향후 인천교육균형발전을 위한 제언

첫째, 건물이나 시설에 대한 기준과 학생에 대한 기준을 분리하여 건물 노후도가 심한 학교를 빠르게 선정하여 개/신축을 진행, 시설에 대한 격차를 줄여 나가고, 학생 개인의 교육격차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방식도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둘째, 대상교 그룹별 워크숍과 컨설팅 진행, 학교별 찾아가는 워크숍, 자체 토론회 진행 등이 필요합니다. 대상교의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인식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사업성과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데이터 축적이 필요합니다. 문제 해결 과정 및 결과가 축적 공유되어야 새로 시작하는 학교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1.5 혹은 2담임제 운영이 필요합니다. 학습격차 대상교 저학년의 경우 한글을 떼고 들어오지 못하는 학생이 다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수업 진도를 나가기 어렵고 학생 하나하나 세심히 지도하기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학년 2담임제 진행을 제안 합니다.

다섯째, 교육복지사의 학교 외 운영(예를들어 동사무소 운영)을 제안합니다. 교육 복지 서비스를 받는 아이들에 대한 낙인 효과로 참여율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 교육복지사가 배정되고 각 가정으로 연계 될 수 있도록 해야 가정의 적극 참여가 동반될 수 있으며 지역과 연계, 마을과 연계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라 생각합니다. 학교의 정보를 동에서 교육복지사가 받아 가정과 구 단위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섯째, 선생님간 격차가 교육격차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의지가 있는 선생님의 경우 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의지가 없으신 선생님의 경우 최소한의 활동이 진행되는 현실입니다. 선생님의 언어 전달 능력, 눈높이 언어 사용, 자세한 표현과 설명 등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이해도 차이가 심하게 나타납니다. 아이들이 학원 선생님이 설명하면 이해가 되는데 학교 선생님이 설명하면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 하는걸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육의 질은 선생님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진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하시는 선생님은 너무 잘 하시는데 그렇지 못하신 선생님도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곱째, 학생별 맞춤형 교육 진행이 필요합니다. 학생의 단계를 파악하고 맞는 교육 방법을 제공하여 자신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며 꾸준히 도전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더불어 학생의 문제가 학부모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부모님이 학생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학부모님에게도 아이의 생애 주기에 따른 부모교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여덟째,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정책도 차별 없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정책은 학교 안 아이들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라 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심각한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지점은 사실 학교 밖 아이들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행 후 평가 과정에서 학생의 변화, 학교의 변화, 가정의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마무리

내 아이만 잘 되길 바라는 어른들의 이기심이, 내 아이가 아니니 문제에 관심 없는 어른들의 무관심이, 교육격차가 추후 삶의 격차로 발생한다는 것과 기회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다양한 인식의 문제가 학습격차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모든 아이가 내 아이라 생각하는 의식 확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보이고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1인의 인재도 중요하지만 1인의 안타까운 생명이 자살을 선택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1인의 범죄자를 안 길러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방향으로 달리면 한 명만 일등이지만 각기 다른 방향으로 달리면 모두가 일등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격차의 문제는 공교육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교육격차의 문제가 추후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삶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직업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환경이 자신의 삶에 문제 요소가 되지 않도록 민·관·산·학이 모두 도와주고 노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3~2027년 교육균형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온라인공청회 (1차)

발행 2022년 3월 29일

발행인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

발행처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9(구월동) (우) 21554

전화 032) 420-8216
